

## 「담쟁이 날의 위원회실」: 가롯 유다를 위한 변명

김 철 수

### I. 들어가는 말

『더블린 사람들』(*Dubliners*, 1914)의 단편들 중 대중생활기를 다룬 첫 번째 단편인 「담쟁이 날의 위원회실」(“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은 1900년대 초 더블린의 정치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면서, 조이스 자신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각도로 연구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작품으로 널리 읽히고 있다.

이 단편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진 특정 선거 사무실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일하던 선거사무실의 보조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조이스의 동생 스타니슬로스(*Stanislaus Joyce*)의 경험에 바탕을 둔 아일랜드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위한 작품이다(Hodgart 48).

스타니슬로스는 자신이 일했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내용을 신물이 나는 듯한 느낌으로 조이스에게 전달했고, “이 엄청난 부패의 덩어리들 속에서 어떻게 소설의 내용이 나올까 의심을 했었다”(206)고 전하고 있다.

이 단편은 더블린 사회의 정치와 정치인 일반에 대한 자연주의적 그림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상징성을 지닌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Walzl

182), 그러한 상징성과 더불어 문체와 시점 등의 요소로 인하여 “조이스가 가장 선호하는”(Peake 39)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피이크(C. H. Peake)는 성숙기에서 대중생활기로의 전환되는 이야기들의 특징은 등장인물의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간접화법을 제거한 것과 정치라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시점을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하여 독자들은 단지 외부 관찰자의 신분으로 작품 속 등장인물의 내면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게 되고, 이 단편집의 중심이 개인의 의식에서 집단의 의식 내부의 다양성을 묘사해 주는 “대중생활기”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한다(47).

표면적으로 이 단편은 파넬(Charles Steward Parnell) 추모일인 10월 6일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당시에 있었던 시의원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로서, 정확한 시기는 이 작품의 내용상의 정황으로 보아 영국왕 에드워드 7세(Edward VII)가 아일랜드를 방문했던 해인 1902년인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급진적 민족주의는 페니언(Fenian)과 게일릭 동맹(Gaelic League) 그리고 게일릭 육상연맹(Gaelic Athletes' Association) 및 *The United Irishman*을 이끌던 아더 그리피스(Arthur Griffith)와 『더 리더』(*The Leader*)지의 D. P. 모런(Moran) 같은 이들에 의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리피스의 『신 페인』(*Sinn Fein*) 같은 정기간행물은 1906년에야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해에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함으로써 이후 1916년 부활절 봉기로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Hodgart 49).

이 단편에 함축된 분명한 정치적 의미는 더블린의 정치에 개입된 거의 모든 아일랜드 인들은 기회주의자로서 영국 정부에 아첨하는 자들뿐이라는 사실이며, 그들은 모두 파넬의 기억에 대해 불충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파넬의 실각 소식을 듣고 “Et tu Healy”라는 에세이를 쓸 만큼 어린 시절에 갖게 되었던 파넬에 대한 집착을 한 번도 떨쳐본 적이 없는 조이스(Peake 38)는 일찍이 아일랜드의 무관의 제왕인 파넬을 예수와 동일시했다.

1912년 5월 16일 『피콜로 델라 세라』(*Piccolo della Sera*)지에 기고한 논문, 『파넬의 망령』(“L’Ombra di Parnell”)에서 그는 어려운 시기에 자신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제자 중 한 명이 그를 배반할 것이라는 파넬의 우울한 확신을 기록한 바가 있고, 엘만(Richard Ellmann)은 프랑스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Anatole

France)의 『유대의 총독』(“The Procurator of Judea”)라는 작품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Pontius Pilate)의 기억을 바탕으로 죽은 자의 기억이 산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플롯을 『담쟁이 낱』에서 차용했다고 주장 한다(262).

본 논문은 『담쟁이의 낱』과 그 작품에 대한 비평문 곳곳에서 등장하는 예수와 파넬 그리고 당시 예수를 팔아넘겼던 제자인 가롯 유다(Judas Iscariot)와 아일랜드의 정치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이 작품 속에 나타난 종교적 상징성이 함의하는 바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 II. 예수와 가롯인 유다

예수의 열 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가 그의 스승을 배반한 경위에 대해서는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각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배반은 예수 자신에 의해서도 예언되었던 것이다.<sup>1)</sup>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 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요 6: 70-71)

그는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 저녁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및 군인들과 관원들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던 겐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미리 짠 신호, 즉 입맞춤으로 예수를 표시하여 체포될 수 있게 하였다.

요한복음 12: 5-6과 13: 29절에 따르면 그는 제자들의 돈궤를 맡은 자로서 사리와 탐욕에 가득 찬 도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탐욕은 그로 하여금 대제사장들에게로 가서 그들과 예수를 배반한 대가를 협상하도록 만들었고, 유월절 최후의 만찬 당시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예수의

1) 마태복음 26: 47-56, 마가복음 14: 43-50, 누가복음 22: 47-53, 요한복음 18: 3-11에는 각각 예수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의 행적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예언을 듣고 즉시 나가서 은전 삼십 냇을 받고 그의 이후 계획을 누설함으로써 예수가 체포되어 사형당하는 데 일조를 했다. 이후 그는 예수의 사형 소식을 접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서 받은 은전 삼십 냇을 성소에 던져놓고 나와서 목매어 자살했다(마 27: 3-5).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 유다의 죽음에 관련된 제한된 정보들을 제공한다. 즉 예수를 배반하여 죽게 한 유다는 그 배반의 값으로 밧을 사고, 배가 터지는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고 진한다.<sup>2)</sup>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값으로 밧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밧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사도행전 1: 16-19)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가롯 유다에 대한 색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즉 그는 대부분 북부 이스라엘 출신인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남단인 유대 땅의 가리옷 (Cariot)이라는 지역 출신의 인텔리로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염원하던 소위 열심당원(Zealot)이었다는 주장이다.

그가 무리의 돈궤를 맡았다는 것은 영리한 머리와 올곧은 성격으로 인하여 예수의 신임을 받은 결과이며,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라는 여자가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의 향유를 예수의 밧에 부었을 때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분을 내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도 증명된다는 것이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밧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밧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의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감이러라. (요한복음 12: 3-6)

---

2) 사도행전 1:16-19.

가롯인 유다에 대한 이러한 색다른 견해들은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성격으로 사탄의 사주를 받아 스승을 죽음의 자리에 팔아넘긴 악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소위 정전(canon) 중심의 가톨릭이나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까다롭거나 조심스러운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제자들이 가롯 유다를 스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배신자로 여기고 그로 인한 분노로 인하여 과도한 부정적인 평가를 드러냈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종교적인 입장보다는 학문적 호기심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그는 예수를 자신의 조국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민족의 지도자로 여겼다가 예수 자신이 정치적 해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알고 실망하여 당시 노예 한 사람이 값에 해당하는 은전 삼십 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겼는데, 그 이유는 예수 자신이 그러한 물리적 타격을 받게 되면 자신도 동일한 물리적 공격을 통하여 이스라엘 해방운동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는 것이다.<sup>3)</sup>

어쨌든 예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인 대제사장들에게 심문을 받다가 후에 로마인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 총독마저도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조국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그동안 조이스는, 마치 구약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쓴 ‘유대인의 왕’ 예수가 그의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갔던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영웅이었던 ‘무관의 왕’ 찰스 스튜어트 파넬이 예수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 자신에 대한 단 한 마디의 변명도 없이 죽음의 길을 갔던 것을 묘사하며 아일랜드의 구세주로서의 파넬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알려져 왔다.

여기서 필자는 이미 잘 알려진 파넬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주장을 바탕으로, 배반의 주체들인 성경의 가롯 유다와 더블린의 정치꾼들 사이의 유사성에 관심의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즉 자신을 친애했던 스승을 죽음의

3) <http://cafe.naver.com/chodaich/170> 이외에도 서보경의 논문에 따르면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의 동기에 대해 1) 금전적 욕망설, 2) 민족주의적 야망설, 그리고 3) 예수의 운명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신학적 가설 등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서보경, “가롯 유다의 예수 배반 동기 이해—예수의 무죄하심 증명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연구소, 『한국신학』 통권22호 (2003 겨울) pp.84-102 참조 (<http://www.koreatheology.or.kr/view.html?id=1238>).

자리로 몰아넣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 그 동안 신약성경의 여러 저자들로부터 지극히 부정적인 묘사를 받아왔던 가롯 유다에게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는 몇 가지의 의견이나 가설에 의거하여 그를 위한 변명을 펴려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영웅인 파넬을 배신한 아일랜드 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에 바탕을 둔 변명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논지로 본 논문을 전개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명의 여지 속에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수치스러운 스캔들에 연루되어 실각하게 된 한 유망했던 정치 지도자의 운명과 희망이 꺾인 후 무기력과 좌절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폭력으로 일관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백성들의 비애로 점철된 삶,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배신의 아이러니 속에서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아일랜드의 비극이라는 지극히 자연주의적인 프로세스가 큰 건물의 대들보처럼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다.

### III. 「담쟁이밭의 위원회실」: 식민지의 좌절, 배신, 그리고 희망

「담쟁이 밭의 위원회실」은 꼼꼼하리만치 천박한 문체(style of scrupulous meanness)로 “조국의 도덕사의 한 장”(Letters I 134)을 쓰고자 했던 조이스가 자신의 영웅이었던 파넬을 거부한 아일랜드인들의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하고자 하는 충동에서 출발한 것이었으며, 그 중심 주제는 아일랜드의 정치적 타락과 배반이다(Walzl 157). 대체적으로 이 이야기 속에는 『더블린 사람들』의 전체적인 모티프인 “생중사” 상태의 인간들의 마비의 양태와 이미 죽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좌지우지하는 ‘부재하는 지도자’의 보이지 않는 힘이 치열한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다.

모든 행동은 위클로우 가(Wicklow Street)에 있는 어둡고, 차갑고, 음울한 지역의 위원회실로 한정되어 있고, 그 방은 화로 속의 사그라져가는 불에 의해 밝혀지고 있었는데, 관리인인 잭 영감(Old Jack)이 부삽이 없어서 마분지 조각으로 그 불씨를 되살리려고 하고 있었다.

이 위클로우 가의 상징성은 이 단편이 아일랜드의 부재하는 지도자인 “파넬과 파넬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민태운 47)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담쟁이 낱”의 기원이 된 파넬의 아본데일(Avondale) 저택과 이 작품에서 파넬을 패러디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부재인물로 인식되고 있는 리처드 티어니(Richard J. Tierney)가 운영하는 술집이 바로 이 위클로우 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장면에 묘사되는 불씨가 사그라져 “하얗게 변해 가는 봉긋한 석탄 더미”<sup>4)</sup>는 블룸(Leopold Bloom)이 『율리시스』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파넬을 떠올리며 되뇌듯이 “점점 빛을 잃어가는 파넬 추모일”(U 6.855)을 상징하고, 그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는 잭 영감의 행동은 “파넬주의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려는 암시”(민태운 55)로 해석되기도 한다.

“선거 유세문 사본을 빼고는 걸려 있는 게 없는”(D 121) 이 위원회실은 대의 명분도, 구체적인 실체도 없는 아일랜드 정치의 공허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회실”이라는 명칭은 파넬이 그의 영국인 정부였던 캐서린 오셰이어(Katherine O’Shea)와의 염문으로 인해 자신이 이끌던 아일랜드 의회당(Irish Parliamentary Party)의 지도자 자리를 상실했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 제15호 위원회실(Committee Room XV)을 연상시킨다(Walzl 182).

그 염문사건 이후 정적들과 성직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끝에 파넬은 1891년 10월 6일에 사망하게 되고, 그 후 그를 추모하는 추종자들이 그를 기리며 그의 집 근처에 피어있던 담쟁이 잎을 옷깃에 달게 되었고, 그 후 그 담쟁이 잎은 파넬의 정치적 이상을 계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 되었다.

선거운동원 중 한 사람인 오코너 씨(Mr. O’Connor)는 티어니(Richard J. Tierney)의 선거벽보 한 장을 찢어서 담뱃불을 붙이고, “그 동작을 할 때 생긴 불꽃으로 진한 색깔에 표면이 반들반들한 담쟁이 이파리 하나가 외투 접은 곳에서 환히 드러”(D 119)나게 되는데, “아일랜드의 정치적 쇠락을 갑자기 드러내주는”(O’Grady 132) 이 장면은 이 단편에 내재된 가장 커다란 아이러니를 드러내주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민족주의 진영의 지도자였던 파넬의 명성과 정치적 이상을 상징하는 담쟁이 잎을 비추는 빛이 바로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 의해 야비하기 그지없다고 평가되는 티어니의 찢어지고 불붙은 선거 벽보로부터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4) James Joyce, *Dubliners: Text and Criticism*.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Penguin, 1969), p. 118. 이후의 텍스트 인용은 괄호 안에 D로 표기하고 쪽수만을 밝힘.

이 단편에 나타나는 대화의 주된 관심사는 전통적으로 아일랜드 독립을 지지 해온 민족진영이 아일랜드를 방문하기로 되어있는 에드워드 7세(Edward VII)에게 환영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이 주제는 이 단편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주요한 서술 모티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운동원들의 대화에 오르내리는 치사한 후보자의 태도와 파넬의 가족사와 그의 생애에 대한 기억과 그에 대한 반응들의 대조이고, 그 두 번째는 민족적 지도자와 종교적 원형 인물로서의 파넬의 인물설정이다.

이날 이 위원회실을 드나드는 다양한 정치 운동원들 대부분은 선거운동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데 온 관심을 갖고 있고 정치적 대의명분이나 도덕적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들에 있어서 정치란 모두 거래와 뇌물의 문제라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후보자와 민족주의 계열의 당에 대한 관심은 모두 돈과 연관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티어니를 경멸하고 그들의 모든 시간을 그를 비방하는데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 위원회실에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당을 운동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그들의 대화는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무책임한가를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본질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나머지 그들은 서로를 믿지도 못하는 명실상부한 ‘정치적 마비’의 현장을 폭로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들의 외모 역시 불쌍사납게 묘사되고 있다.

오코너 씨는 “머리가 희끗하고 얼굴에는 종기와 여드름이 흉하게 덕지덕지 난 젊은이”(D 118)로 묘사되고 있고, 스타니스로스가 자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벗어나 설명한(Stanislaus 206) 헨치 씨(Mr. Henchy)는 “코를 쿵쿵거리며 자그마한 사내”(D 122)로 등장한다. 그 뒤에 입장하는 키언 신부(Father Keon)는 “가난한 성직자나 가난한 배우를 닮은 늑늑한 치즈 꼴”(D 125)이고, 본래 경선에서 물러난 보수당 쪽 윌킨스(Wilkins)의 선거운동원 이었다가 후보가 사퇴하는 바람에 최근에 투입된 크로프턴(Crofton)은 “황소의 얼굴표정”을 가진 “매우 뚱뚱한 남자”로 묘사되고 있다. 이들의 대화는 속어가 섞인 더블린 식의 관용어구와 생생한 욕설들로 너무나 분명히 결합되어 있어서 스스로의 부패하고 마비된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Walzl 182).

이 단편에서 두 번 등장하는 조 하인스(Joe Hynes)는 “열은 갈색 콧수염을 기른 호리호리한 청년”(D 120)으로 외관상으로 조이스를 닮았다(Walzl 182). 그는

티어니의 족벌주의와 “환영사”에 대한 그의 지지를 우려하고 있다. 파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옷깃에 달고 있던 담쟁이 잎을 단순히 어루만지며 그는 부재하는 지도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만일 이분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환영사 얘기 따위를 꺼내고 있지 않을텐데”(D 122).

파넬에 대한 열정이 환기되는 순간 늙은 관리인은 “그 시절에는 살만했다(D 122)”고 회고한다. 이처럼 위원회실을 방문하는 일단의 방문객들을 통해서 조이스는 조국의 자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파넬의 정치적 애국심에 대한 기억과 티어니의 알팍한 정치적 역량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아일랜드의 정치꾼들의 야비함을 아이러니컬하게 대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독자들이 재고해 볼만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비참한 식민지로 전락한 국가의 아버지의 형상으로서의 파넬의 이미지이다. 비록 부재의 상태로 아일랜드의 정치적 현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영국의 식민지로서의 아일랜드는 자신의 아들들을 술주정뱅이와 게으름뱅이로 만드는, 그 영향력을 상실한 부재하는 아버지인 셈이며, 그러한 아버지의 상징으로서의 파넬은 현재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더블린 사람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진공상태에서 성장하거나 어른들의 폭력에 희생자로 자라게 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자신보다 더 영향력 있는 친구들에게 피해 의식이나 열등감에 시달리며, 성인이 되어서도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폭력을 휘두르며 온전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지속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은 때로 “억압받고 있는 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억압하는 타자’”(김철수 55)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식민지의 무력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채, 『하숙집』(“The Boarding House”)의 무니 여사(Mrs Mooney)나 『어떤 어머니』(“A Mother”)의 키어니 여사(Mrs Kearney)와 같은 억센 어머니의 영향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힘든 상황은 잭 영감의 신세 한탄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아무렴요.” 영감은 부채질을 계속하며 말했다. “애들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켜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놈이 결국 그 꼴이 날지 누가 알았겠느냐 말  
이요! 크리스천 브라더스 학교에도 보내주고 힘닿는 데까지 해 주었던만, 술이  
나 퍼마시고 돌아다니니. 어떻게든 좋은 사람 좀 만들어 보려 했건만.”

영감은 판지를 힘없이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내가 지금 늙지만 안았어도 그 놈 자식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을 텐데. 그  
놈을 지켜볼 수 있는 한에는 등짝을 회초리로 두들겨 뺨니다. 전엔 그렇게 혼  
쫓 낸 것이 어디 한두 번인가요? 그놈의 어머니가 문제예요. 이리저리 애를 두둔  
만 하지 됩니까?” (D 119)

나라를 잃고 지도자를 잃은 아일랜드 인들은 자신들의 무력감을 음주에 의존  
하여 지내고, 그들의 아들들 역시 술에 취한 아버지들의 무기력함을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자신들도 역시 돈을 버는 대로 “몽땅 퍼마셔 버리는”(D 120) 습관에 빠  
지는 악순환이 피비우스의 띠처럼 지속됨으로써, 음주와 폭력으로 점철되는 아일  
랜드의 사회적인 문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다.

자유와 독립의 열의를 꽃 피워줄 것으로 여겼던 국부요 지도자가 수치스런 스  
캔들의 희생자가 되어 사라진 뒤 정치적, 경제적 약자의 위치로 전락해 버린 아일  
랜드 인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로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약자들의 선택은 결국 돈의 문제와 결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코너 씨가 말했다.

“무슨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건 좀 제때 챙겨 줘야 할텐데...”

하인스 씨가 영감에게 빈정대는 투로 물었다.

“영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감은 난롯가 원래 자리로 돌아와 말했다.

“어쨌든 돈이 없는 건 아니지요. 저쪽 편 뜨내기 갈기야 할라고.” (D 111)

경제성 상실로 인하여 바닥에 떨어진 부권의 소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  
한 문제는 그러한 경제성의 회복이며, 비록 현재는 자신들에게 급료를 지불하지  
않는 티어니 대표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  
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 “현관에 집달관들이 진을 치고 있을 것”(D 124)  
을 염려하는 이 운동원들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노동자인 콜건을 배제하고 티어니  
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평생을 억압받는 노동자의 입  
장에서 살아왔으면서도, 자신들을 억압해 온 세력들의 논리를 내재화함으로써, 스

스로 억압받는 자들을 경멸하는 잭 노인의 행동은 아이러니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민태운 56).

“노동자란,” 하고 하인스 씨가 말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돈은 못 버는 사람이지요. 그런 모든 걸 만들어 내는 건 노동이란 말이오. 노동자란 자기 자식과 조카와 사촌에게 넘겨줄 수지맞는 일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노동자란 독일계 군주 비위를 맞추느라고 더블린의 명예에 먹칠을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D 121)

조이스와 가장 가깝게 묘사된 하인스는 이 단편에서 노동계급과 중산계급의 대립구조 속에서 문화적으로 침묵 당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미 죽어서 현실 속에서는 이미 부재하는 타자가 되어버린 파넬이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 담론을 자극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부재하는 콜건이 하인스와 잭 노인으로 하여금 노동자의 전통적 침묵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충실한 파넬주의자이며 콜건 같은 사회주의적 성향의 후보에 대한 지지자” (민태운 61)인 그는 왜곡된 파넬주의에 대한 패러디를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파넬과 마찬가지로 부재하는 지도자이며 아직은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는 리더인 콜건을 옹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현재의 타락한 민족주의 계열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민태운 62).

이처럼 하인스가 현재 파넬의 뒤를 이은 민족진영의 후보인 티어니가 자본의 유입을 빌미로 에드워드 7세의 아일랜드 방문을 환영할 것이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암시하자, 오코너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영국 왕을 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와 같은 대의명분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돌아올 선거운동의 수당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다.

“우리 후보는 환영사에 찬성 투표하지 않을거야.” 오코너 씨가 말했다. “이 양반은 국민당 공천을 받았으니까.”

하인스 씨가 말했다.

“안 한다고? 어디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지, 뉘. 난 어떤 사람인지 알아, 사기꾼 디키 티어니 맞지?”

“하기는! 조, 어쩌면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 오코너 씨가 말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돈이나 들고 나타나면 좋으련만.” (D 122)

요컨대 이처럼 아일랜드의 정치적 미래를 염려하고 있어야 할 몇몇 정치꾼들이 대의명분 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에만 급급하며 매우 초라한 배신자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배신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의 가정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진 경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생각은 떨칠 수 없다.

오코너 씨와 헨치 씨의 대화에서 티어니의 추천인으로 거명되는 버크 신부(Father Burke)를 비롯한 성직자들이 아일랜드의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단편에서 구체적으로 그 행동이 묘사되는 사람은 키언 신부이다. “너무 세속화된 아일랜드 사제의 대표”(O’Grady 137)로 알려진 이 신부는 티어니의 운동원 중 한 사람인 패닝 씨(Mr Fanning)를 찾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소한 불일”(D 126)때문이라고 한다.

오코너의 증언에 따르면 그 신부는 패닝과 함께 카바나 술집(Kavanagh’s)에서 함께 있을 때가 많았는데, 신부가 성당이 아닌 술집에서 정치꾼과 자주 만나는 모습은 세속 정치에 간여하며 종교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천덕꾸러기(a black sheep)”(D 126) 같은 타락한 사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가톨릭의 사제들은 조이스의 작품에서 파넬의 실각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때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한 세력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것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성탄절 만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만찬장에서 케이시 씨(Mr Casey)는 사제들이 창조주에 대한 기도나 설교보다는 정치적인 연설을 함으로써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그 결과로 자신들의 영웅이었던 파넬을 실각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했음을 격렬히 비난했고, 그에 대해 파넬을 조국의 배신자이자 간통자라고 비난하는 댄티 리오던 여사(Dante O’Rioran)와 신랄한 논쟁을 벌이게 된다. 즉 영웅 파넬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또 하나의 가룟 유다로서 가톨릭 신부들을 예로 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아일랜드의 사제들이 그 수많은 비난의 화살을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사제들이 파넬을 반대하는 설교를 했던 것은 그들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파넬이 성서에서 강조하는 성결의 규칙을 어기고 남의 여자를 탐한 사실 때문이 아닌

가 생각된다.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자 하는 정치 지도자의 순결의 문제가 그 초점이었던 것이다.<sup>5)</sup>

위원회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티어니에게서 도착한 맥주를 나눠 마시고 있던 도중 두 사람이 위원회실로 들어오게 된다. 그들은 보수당 후보였던 윌킨스의 운동원이었다가, 그 후보가 사퇴하게 되자 “두 악당 중에서 그나마 좀 덜 악한”(D 131) 민족주의 계열을 지지하기로 하고 티어니의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중이었다.

그중 한 사람인 라이언스(Lyons)는 파넬과 에드워드 7세의 부도덕과 성적문란을 동시에 비난한다. 그는 『예술가의 초상』에 등장하는 댄티 여사처럼 “파넬의 도덕적 행위와 그의 정치적 목표가 무관함을 깨닫지 못한다”(O’Grady 138)고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정치 지도자의 육체적, 정신적 성결을 강조하는 그의 태도는 아마도 순수한 신앙의 태도로서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와서 따져보면,” 하고 라이언스 씨가 따지듯이 말했다. “에드워드 왕의 생활이 말이야, 딱히...”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헨치 씨가 말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좋게 보네. 단지 자네나 나처럼 평범한 한량일 뿐이라고, 술도 세고, 난봉꾼 기질도 좀 있을거고, 운동도 잘하지. 젠장, 우리 아일랜드 국민은 공정해지면 어디가 덧나나?”

“자네 말 다 좋아.” 라이언스 씨가 말했다. “그러나 이제 파넬의 경우를 보자고.”

헨치 씨가 말했다.

“답답하기는 참. 그 두 경우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그래?”

라이언스 씨가 말했다.

“내 말은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맞는 이상이 있다는 거지. 자, 도대체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을 환영해야 하느냐고. 자네는 파넬이 그런 짓을 했어도 우리 지도자로 적합하다고 보나? 그렇다면 에드워드 7세에 대해서는 왜 눈감아 주어야 하느냐 말이야.” (D 122)

5) 구약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제6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제9계명)”와 같이 외도와 탐욕을 경계하는 내용의 규율이 강조되어 있다.

결국 지도자의 육체적, 정신적 성결을 강조하며, 파넬 뿐만 아니라 영국 왕의 문란한 사생활까지 함께 비난하는 라이온스 씨의 일관적인 태도는 종교로서의 가톨릭의 가르침이 내재화된 결과이며, 그 기저에는 부도덕한 정치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제들의 신앙적 양심에 대한 이해가 깔려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러한 신부들의 신앙적 양심은 반대로 파넬의 무분별한 추종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폄하되어, 세속적 관심사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정치신부로 비난을 받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을 것 같다.

부재의 지도자인 파넬의 기념일에 민족의 자유와 자존이라는 대의명분이 침해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현실에 의해 억눌려 그 불투명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된 매우 우울한 위원회실의 분위기는 예기치 않게 배달된 흑맥주 한 상자에 의해 다소간의 활기를 찾게 된다.

그러나 불시에 찾아든 이 작은 즐거움의 순간마저 그 맥주의 코르크 마개를 따는 데 사용할 병따개의 부재로 인하여 그 기쁨이 지체되고 만다. 어렵사리 옆 가게에서 병따개를 빌려왔으나 이번에는 맥주를 따라 마실 잔도 없는 상태이다. 이 장면은 지극히 사소한 경제적 활동도 불가하게 된 아일랜드의 처절한 현실을 드러내 주고 있으며, 결국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 즉 벽난로 위에 맥주병을 올려 놓아 그 열기의 압력으로 코르크 마개가 빠져나오게 한 후 병째 마시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D 130). 그 후 몇 차례 들려오는 맥주의 마개가 빠져나올 때 들려오는 “푹”하는 소리들은 이 맥주의 유입으로 인하여 다소나마 회복된 위원회실 안의 인물들의 자신감과 진지함 들을 희화화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서술자가 다른 민족주의 계열 운동원들보다 자신을 더 우월하게 여기고 있다고 묘사한 크로프트 씨가 소개된 후(D 131), 에드워드 7세를 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는 헨치 씨와 라이온스 씨의 대화 중간에 오코너 씨가 “오늘은 파넬 기일일세”(D 132)라고 말하며 주의를 환기시킬 때, 그리고 하인스 씨가 “모자를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은 다음”(D 133) 경건한 태도로 “파넬의 죽음”(D 134)이라는 시를 낭송한 후 파넬을 추종하던 사람이나 심지어는 그를 부정하던 라이온스 씨까지 합세하여 박수를 치고나서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모든 청중이 말없이 술잔을 비운”(D 135) 그 순간 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푹”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들은 파넬의 기억으로 인해 생겨난 진지함을 일종의 웃음거리로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하인스의 시는 파넬의 실각과 사망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근대사회의 위선자들, 겁쟁이 사냥개들, 그리고 아침을 일삼는 성직자들을 비난함으로써 과거의 희생 제물로 바쳐진 아일랜드의 현재와 미래의 비극을 강조하고 있다.

파넬을 영웅이자 순교자로 추앙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영혼이 불꽃으로부터 부활하는 불사조와 같이 일어날”(D 135) 구세주로 묘사하고 있는 그의 시는 비록 그 내용은 “감상적이고, 과장되었으며, 심지어 진부한 내용”(Walzl 184)이었으나, 이 단편 속의 유일하고 진지한 파넬 신봉자인 하인스를 통해서 “그의 짧은 학식과 애정어리고 충성스런 정신이 생산해낼 수 있는 최고의 산물”(Boyle 8)로 거듭났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단편의 가장 마지막 행에서 크로프턴 씨에 의해서 “매우 훌륭한 글”(D 135)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는 식민지의 좌절을 애잔하게 노래하고, 정치와 종교지도자들의 배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엄중하게 단죄하며, 더 나아가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간절한 희망을 생명력 있게 묘사한 젊은 시인의 걸작인 셈이다. 그러나 또 한 편으로는 크로프턴 씨의 칭찬은 하인스의 시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조이스 자신이 가장 선호했던 단편인 『담쟁이 낚의 위원회실』이라는 작품에 대한 작가 스스로의 “비평적 평가”(Walzl 184)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요컨대 하인스의 시는 십자가의 치욕을 딛고 일어난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식민지 아일랜드의 정치적 실체이자 구원자로서의 파넬을 기리며 칭송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의 거대한 정치적 이미지는 그를 실각시킨 수치스런 이유로 인하여 오히려 패러디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IV.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은 『담쟁이 낚의 위원회실』의 중심 모티프로 알려져 있는 ‘가롯 유다의 예수 배반’이라는 사건을 성서 내외의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그의 행위에 대한 몇 가지의 변명의 요소들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요소들을 ‘더블린의 가롯 유다,’ 즉 그들의 유일한 정치적 희망이었

던 파넬을 배신하여 죽음의 키스를 보낸 더블린의 사제들과 일부 정치적인 인사들에게로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비록 틴달(William York Tindall)의 주장처럼 본 단편은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고 모든 일관성이 사라진 채, 아버지와 아들, 신부와 교회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정당한 관계성이 결여된”(34) 마비의 중심이자 배신의 중심인 더블린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러한 배신의 결정적인 이유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

파넬의 서거를 애도하는 날 시의회 선거운동 사무실 안에서 여덟 명의 등장인물들 사이에 벌어지는 산만한 대화 내용은 당시 더블린의 정치, 경제 및 사회와 문화를 적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예컨대, 지도자였던 파넬의 사후에 복잡하게 형성되었던 더블린의 정치 지형도에는 실각한 지도자와 타락한 민족진영의 대안으로서의 노동계급이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과정 가운데서 작가로서의 조이스는 민족주의 계열보다는 노동계급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경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일랜드의 독립이라는 대의명분 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비어있는 주머니를 채워줄 경제적인 영향력만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영국의 제국주의라도 별 상관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블린 사람들의 이와 같은 형편없는 정치의식은 마치 온전 삼십 냥에 스승인 예수를 팔아넘겼다가,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한 가롯 유다를 연상케 한다.

성서에 나타난 가롯 유다에 대한 평가가 스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의 배반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전후 맥락에 대한 일질 설명 없이 결과적인 부분만 강조하며 극히 부정적으로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에 빚대어 평가되고 있는 아일랜드의 정치 및 종교계의 인사들에 대한 평가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아일랜드 독립과 자치를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졌던 파넬의 실각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그들은 아일랜드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고려하여 사적인 영역에까지 순수함을 잃지 않았어야 할 지도자가 적절치 못한 사생활 관리로 인하여 수치스러운 결과를 맞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아일랜드

의 미래를 더할 나위 없이 암울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파넬 자신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국 파넬의 실각과 그에 따른 아일랜드의 좌절은 그 결과를 통하여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특정 집단의 배신에서 기인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파넬 자신의 책임이며, 그를 파멸시킨 아일랜드 종교계의 배신은 그들의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가 공적 영역 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까지 그 순수성을 잃지 않은 인물이기를 희구하는 아일랜드인들의 의로운 염원의 결과는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전주대)

## Works Cited

- Boyle, Robert. "Two Gallants' and 'Ivy Day in the Committee Room.'" *JJQ* 1 (1963): 3-9.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Oxford: Oxford UP, 1959.
- Hodgart, Mathew. *James Joyce: A Student's Guid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8.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Robert Scholes and Walton A. Litz.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9.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 I. Ed. Stuart Gilbert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66.
- \_\_\_\_\_. *Ulysses*. Ed. Hans Walter Gabler. London: Vintage, 1968.
- Joyce, Stanislaus. *My Brother's Keeper*.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8.
- MacCabe, Colin, ed. *James Joyce: New Perspectives*. Brighton: The Harvester Press, 1982, 61-62.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London: Edward Arnold, 1977.
-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Syracuse UP, 1995.
- Walzl, Florence L. "Dubliners." *A Companion to Joyce Studies*. Ed. Zack Bowen and James F. Carens. London: Greenwood Press, 1984. 157-228.
- 김철수. 『더블린 사람들』의 이어성: 내 안의 타자. 『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9권 1호 (2003년 6월): 55-82
- 민태운. 『조이스의 파넬주의와 사회주의: 『파넬 추모일의 선거사무실』을 중심으로. 『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14권 1호 (2008년 6월): 45-66.
- 조이스, 제임스. 이종일 역. 『더블린 사람들』. 서울: 민음사. 2012.
- <http://cafe.naver.com/chodaich/170>.
- <http://www.koreatheology.or.kr/view.html?id=1238>.

**Abstract**

“Ivy Day in the Committee Room”:  
An Excuse for Judas of Iscariot

Cheol-soo Kim

This paper aims to search for the elements of excuse for Judas of Iscariot, who has been blamed for betraying his master, as a central motif of “Ivy Day in the Committee Room” using materials from the Bible and other sources. The procedure shined a light on the need for new positions of the religious leaders in Ireland, who have been treated similarly due to the betrayal of their political leader.

The main characters in the story are pursuing only the economic influence, which they hope to fill their empty pockets instead of the grand purpose of freedom and independence of Ireland. In every aspect, they do not care even though the money comes from the British Empire, who have colonized their country.

The negative evaluation of Judas Iscariot is based on the resentment of the other disciples who were influenced by the death of their master. The betrayal of the Irish religious leaders, who blamed Parnell emphasizing the purity of a political leader, has been degraded as a target of blame because it had caused the downfall of the leader.

However, as many well-documented evidences claim that there are some plausible, namely personal, political and religious reasons for Judas of Iscariot to sell his master, Jesus, the conversations of the people in this story shows some real reasons for religious and political people of Ireland to rebuke and betray their substantial leader.

In brief, the downfall of a promising Irish political leader and subsequent frustration of his home country do not seem to be caused by a mere betrayal of a specific group of people who wish to achieve political and economic benefit, but

can be interpreted as a manifestation of their righteous desire for a leader not to lose his spiritual and physical purity.

■ **Key words** : James Joyce, “Ivy Day in the Committee Room,” Judas Iscariot, betrayal, politics  
(제임스 조이스, 『담쟁이 낱의 위원회실』, 가룟 유다, 배신, 정치)

논문접수: 2013년 5월 21일

논문심사: 2013년 6월 7일

게재확정: 2013년 6월 7일